

돼지가격 하락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



송금찬 연구자
농촌진흥청



1. 머리말

국내 돼지사육두수가 2004년 6월 현재 9,017천두이고, 수입물량이 6월 현재 작년 동기대비 124.5%가 증가된 75,887톤으로 2003년 전체 수입물량인 60,813톤 보다도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비육돈 두당(100kg/두) 산지 돼지가격은 연초 189천원에서 최근 250천원에 형성되고 있다. 이는 조류 독감과 광우병의 파동, 돼지고기 대체재인 쇠고기와 생선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었고, 연초 자돈의 만성 호흡기 질병으로 인한 피해, 계절적 요인인 여름철의 고온다습으로 모돈의 수태율이 떨어져 이 시기에 출하될 돼지의 공급물량 부족 등으로 예전에 비하여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8월 이후 출하물량이 서서히 증가되고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 추석 이후 산지 돼지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양돈경영은 높은 기술과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양돈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다른 농축산업 분야에 비하여 매우 중요하다. 양돈장의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가격이 생산비용 보다 높게 형성되거나, 생력기술 수용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작년도 비육돈 두당(100kg/두) 전국평균 생산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생산비)가 157천원으로 나타났으나 금년도 사료가격 37% 인상요인을 고려할 때 현재 비육돈 두당 생산비는 186천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하반기 돼지가격 하락에 대비한 양돈장의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 양돈장의 재무구조 현황

최근 사료가격 인상분이 반영된 양돈장의 재무구조 현황을 보면, 국내 양돈장의 비육돈

두당 총자본액은 367~379천원, 총자본액에서 고정자본액의 비중은 58.6~6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돈장의 재무구조를 갖고 경영 분석한 결과, 수익성에 있어서 소득률(소득/조수입)은 기준지표인 15% 보다 낮은 3.1%, 총자본이익률(순수익/총자본)은 기준지표인 8% 보다 낮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생산성에 있어서 노동생산성(소득/노동시간)은 도시근로자(제조업 분야)의 남자 평균 시간당 노임단가인 8,173원 보다 48.4% 낮은 4,216원, 안전성에 있어서 자기자본비율은 기준지표인 50% 보다 높은 74.4%, 매출액지불이자[(지불이자+할인율-수취이자)/조수입]은 기준지표인 2% 보다 낮은 1.1%로 나타났다.

즉,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국내 양돈장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안전성은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수익성과 생산성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료가격의 부담비율이 높고, 하반기 산지 돼지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장의 재무구조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3. 돼지가격 하락에 대비한 경영전략

양돈경영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간 모든 두당 비육돈 출하두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생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즉 모든 관리에서 비육돈 출하에 이르기까지 시설환

<표 1> 비육돈의 두당 재무구조 및 수익성

(단위 : 원)

구 분	500~999두	1,000~1,999두	2,000두 이상	평 균
1. 호당 평균 상시 사육두수(두)	7,545.4	1,427.9	3,268.9	1,066.2
2. 자본평가액	366,551	375,722	379,301	378,961
• 고정자본액	223,146	228,525	222,418	228,248
• 유동자본액	145,529	147,197	156,883	150,713
* 자기자본액	301,562	289,870	252,197	281,795
* 차입자본액	64,989	85,852	127,104	97,166
* 자기자본 구성비(%)	82.27	77.15	66.49	74.36
3. 두당 노동 투하량	1.42	1.16	1.23	1.36
• 자가노동	1.14	0.70	0.28	0.73
• 고용노동	0.28	0.46	1.00	0.63
* 자가노동 구성비(%)	80.28	60.34	18.70	53.68
4. 조수입(A) * 최근 5년 평균 가격	184,285	181,615	183,001	182,800
5. 경영비(B)	174,587	176,612	177,476	177,066
6. 생산비(C)	188,817	188,012	185,396	188,476
• 고정비	52,310	55,570	47,860	52,750
(차입자본이자)	(1,340)	(2,510)	(5,696)	(2,090)
• 유동비	136,507	132,442	108,610	135,726
7. 소득(D=A-B)	9,698	5,003	5,525	5,734
8. 순수익(E=A-C)	△4,532	△6,397	△2,395	△5,676

자료: 농림부 국립품질관리원, 2003년도 축산물 생산비, 2004

경, 사양관리, 질병관리, 분뇨처리, 경영관리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생산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금년도 사료가격 37% 인상요인을 고려할 때 현재 비육돈 두당(100kg) 생산비가 188천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비목별로는 사료비가 58%인 109천원, 가축비가 24%인 45천원으로 생산비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양돈장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비목에 대한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가. 사료비의 절감

1) 자돈의 격리조기이유시스템 정착

대부분의 농장에서 돼지를 사육할 때 육성돈 사료 위주의 무제한 급여체제로 조기사육하는 것은 고정자본의 회전을 높히려는 측면도 있지만, 육성단계에서 위축돈 발생비율과 폐사율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육성비육단계에서 위축돈 및 폐사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염성 질병보다는 돈사의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미흡과 자돈의 면역성이 떨어지는 21일령 이후까지 포유함으로써 어미돼지로부터 전가된 질병이 육성비육단계에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사육단계별 적정 급여기준을 볼 때, 현행 양돈장의 사료 급여체계로는 젖돈사료가 34kg, 육성돈사료는 166kg을 더 많이 급여하고 있고, 비육돈 사료는 반대로 145kg을 적게 급여하고 있다. 특히, 무제한 급여체계 방식은 적정 총급여량에 비하여 55kg를 더 급여함으로써 사료비의 증가는 물론, 분뇨 발생량이 많아져 이증으로 비용부담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육단계별 맞춤사료 급여로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격리조기이유시스템의 도입과 격리조기이유에 따른 스트레스 최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액상사료급여체계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2)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급수시설의 확보

돼지의 식욕은 체중을 고려할 때 다른 동물에 비하여 으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왕성하기 때문에 돼지사육에 있어서 포만감을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육농장에서 급수시설로 돈방당 니뿔 1개에 의존하고 있으나, 과잉 급여되고 있는 사료량을 물로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사료의 허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3) 비육돈의 암·수 분리 사육

돼지는 암·수의 유전적 형질에 따라 성장속도가 다르므로 분리 사육하는 것이 올인-올아웃에 의한 돈사의 합리적인 이용은 물론, 사료의 허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필자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비육돈을 암·수 분리 사육함으로써 미분리 사육할 때 보다 혼합사육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로 성장촉진 및 위축돈 발생비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료요구율을 5.5% 낮출 수 있어 32%의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료 구입방법의 개선

국내 양돈장 대부분이 모돈에 대한 기록관리와 자금의 입·출입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계획적인 자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외상사료에 의존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이는 현금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사료 구입비의 15~25%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와 같이 사료가격의 파격적인 인상으로 인한 고비용 생산구조에서 수입물량의 증가, 8월 이후 출하물량의 증가로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격하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료비와 가축비의 절감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자금관리의 불합리로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나. 가축비의 절감

가축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량 종돈의 확보가 필연적이나, 농가단위에서 이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기에는 종돈장의 신뢰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가단위에서 가축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모든 두당 비육돈의 출하물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유두수 증대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유두수 증대를 위해서는 산자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배란수, 생존율 등이 중요하다. 특히, 배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돈의 이용산차비율의 적정화, 모돈 품종의 단일화를 도모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사의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모돈의 주간단위 사양관리시스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편, 여름철 고온기에 무리한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적은 자본으로 온도관리를 할 수 있는 차광막이나 간이스프링쿨러의 설치, 공기흐름의 사각지대 해소 등 환기시설을 보강하여 쾌적한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모돈의 생산성 향상으로 가축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필자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유두수가 1% 증가하면 소득은 4.4%가 증대되고, 사료

비가 1% 증가하면 소득은 2.6%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유두수가 증대하면 고정시설의 부담비율이 낮아지고, 규모경제에 따른 노력시간 등의 절감을 가져와 자돈생산비(가축비)와 감가상각비, 노력비 등 여러 비목에서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맺는 말

양돈경영은 재무구조를 살펴볼 때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인 관계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의 연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금년도와 같이 사료가격의 파격적인 인상으로 인한 고비용 생산구조에서 수입물량의 증가, 8월 이후 출하물량의 증가로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격하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료비와 가축비의 절감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양돈경영은 시설 및 사양관리 등이 사육단계별로 다르고 복합기술이 수반되는 관계로 단기간에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수익을 높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농장별 기술취약 부분의 보완을 위해 우수농장을 벤치마킹하고 여유자금 현금 확보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양돈**